

글로벌 야간 시황 브리핑: 매크로 충격과 코스피의 고립

중동발 리스크가 촉발한 자산 로테이션과 10월 증시 전략



Date: 2026-10-09
Type: Nightly Briefing
Status: Confidential

**WTI \$64.89 (+4.2%) /
US 10Y 5.24% (+5bp)**

중동발 유가·금리 동반 급등

**DOW +2.01% /
NASDAQ -1.25%**

기술주에서 가치주로 엑소더스

**KOSPI 6,625.93 (-2.62%)
삼성전자 Q3 OP 107조**

코스피 고립 심화

**GOLD \$4,985 /
BTC \$67,350**

안전자산으로 피난

이란 공격 우려
및 호르무즈
유조선 피격.
통항 급감.



WTI Crude
\$64.89
(+\$2.62)

중동발 공급 불안에
국제유가 4%대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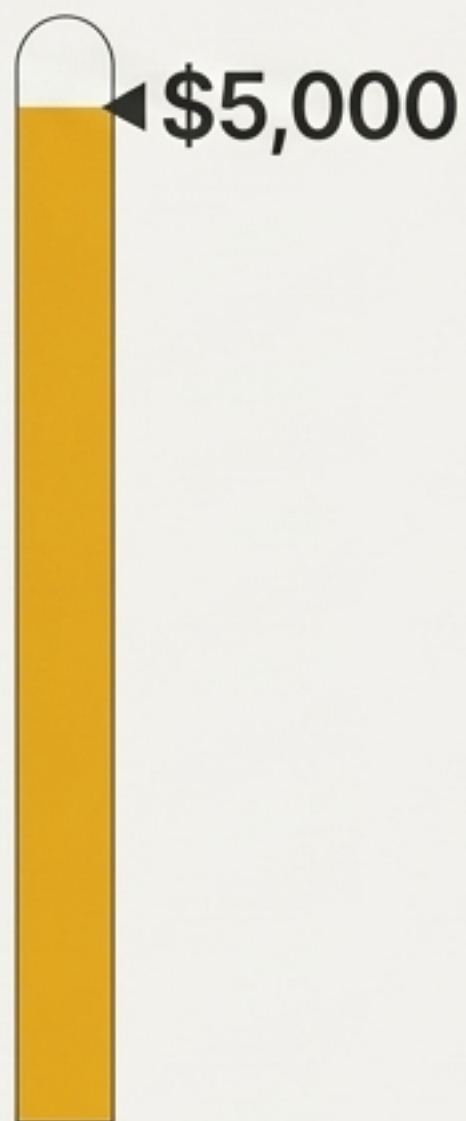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 확산.



US 10-Year
Treasury
5.24%
(+5bp)

고금리 장기화(Higher
for Longer) 공포에
위험자산 투자 심리 위축.



금(XAU) \$4,985 (+\$18)

안전자산 선호의 결정체,
사상 초유의 \$5K 돌파 목전



BTC \$67,350 (+\$1,240)

ETF 순유입 지속되며
리스크 헷지 수단으로 부각



USD/KRW ₩1,341.01 (-5.30원)

글로벌 달러 약세 연동에
따른 원화 강세 흐름

The Great Rotation: 기술주와 가치주의 완벽한 디커플링

DOW JONES
51,231.64 (+2.01%)

- 치폴레 6% 급등
- 허리케인발 에너지주 강세
- 실적 뒷받침 가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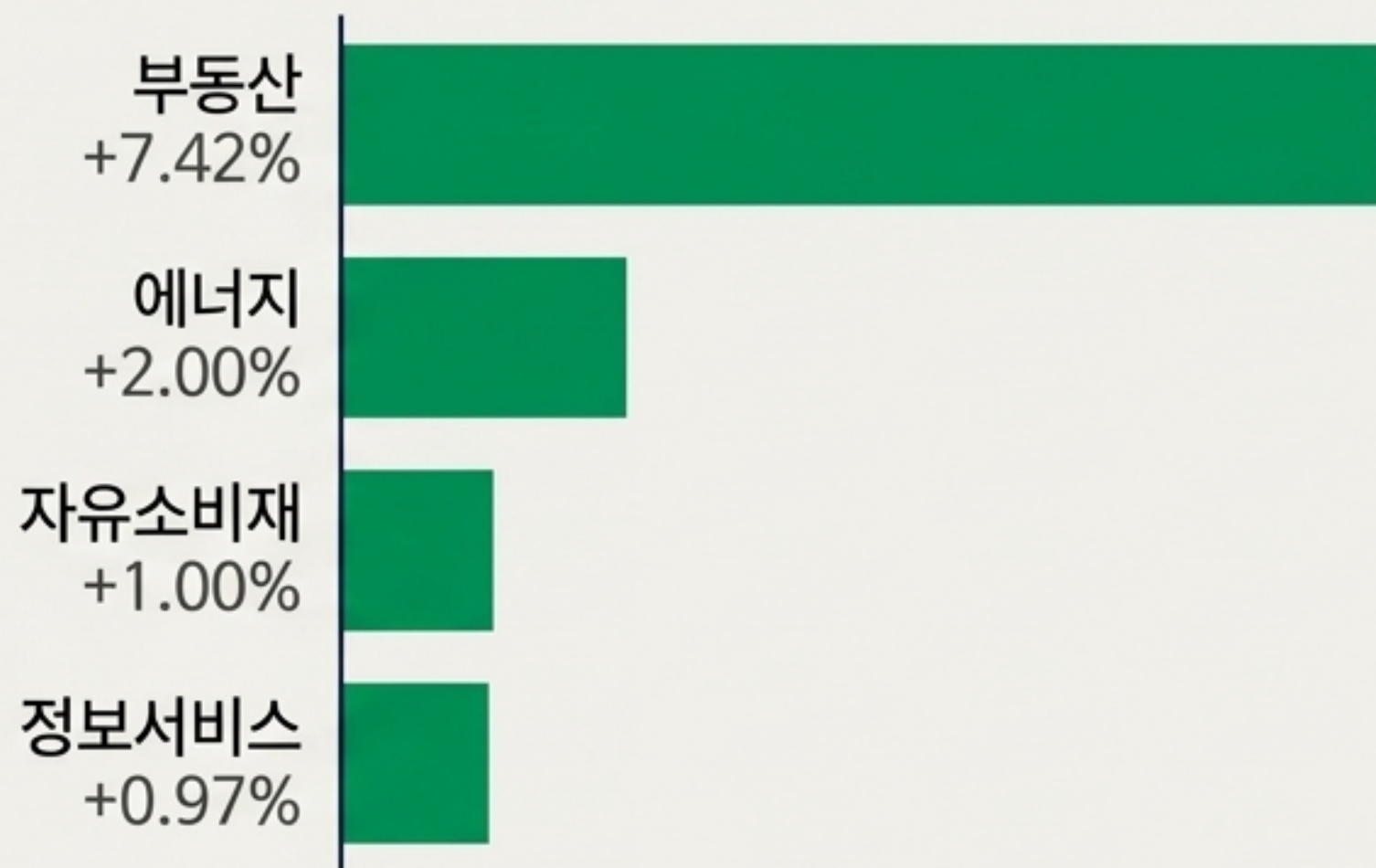
NASDAQ
-1.25%

S&P 500
7,765.36 (-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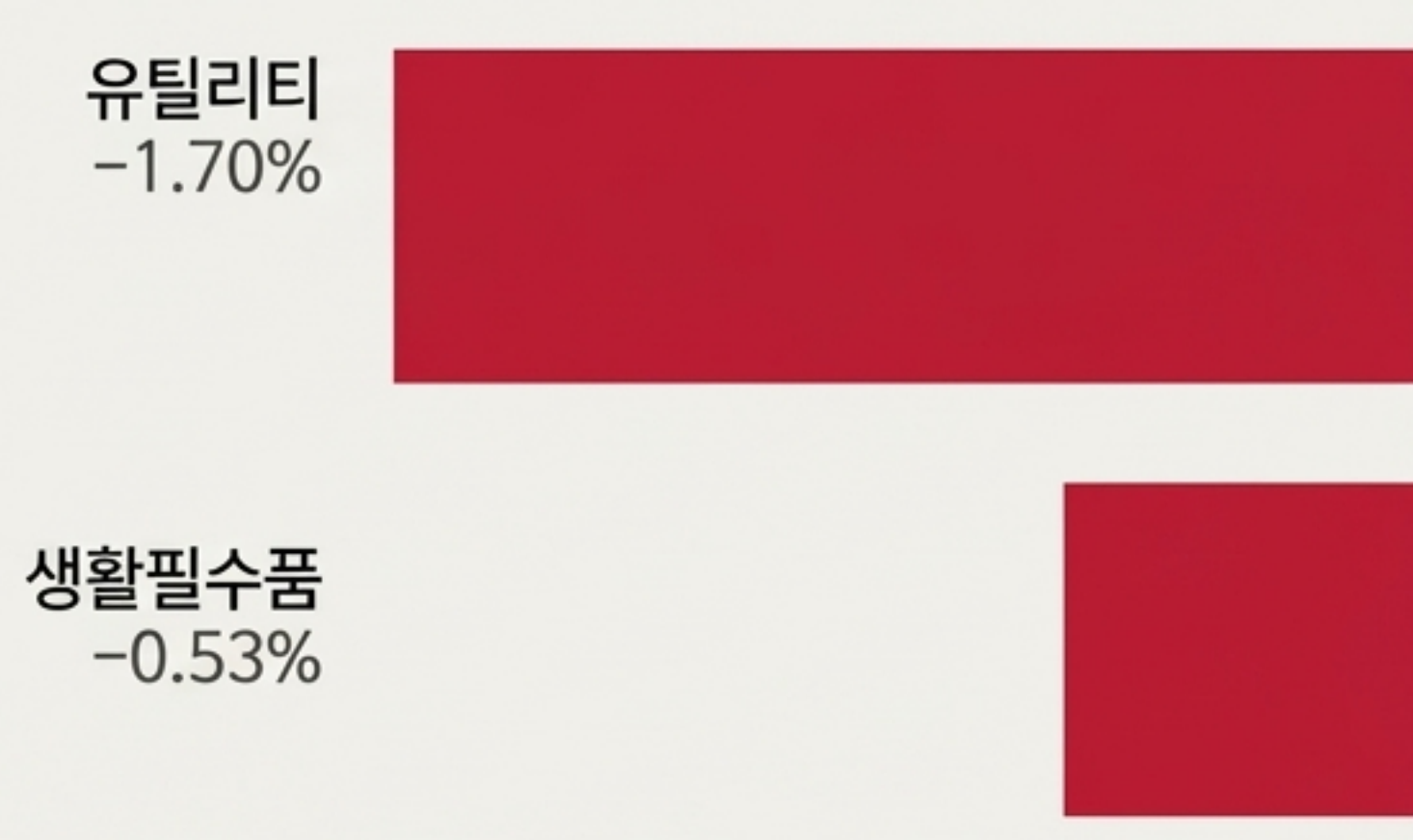
- 오픈AI 실적 충격
- 반도체(엔비디아 외) 약세
- AI 인프라 고평가 부담

지수 혼조세의 본질은 자금 이탈이 아닌, 기술주에서 가치주로의 거대한 자산 이동(Exodus).

상승 섹터 (Winners)



하락 섹터 (Losers)



AI 관련주와 유틸리티 섹터는 금리 상승과 비용 부담에 타격을 받은 반면, 인플레이션 헷지가 가능한 부동산 및 에너지는 초강세를 띠었다.

아시아 시장의 거대한 자금 이동: 한국에서의 이탈, 중화권으로의 이동

4년간 이어진 'Sell China' 종료

• 상하이 +0.45% / 항셱 +1.79%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도

• KOSPI -2.62%
(3분기 수익률 -19.3%)

대만으로 눈 돌린
글로벌 투자자

아시아 편 내 한국 비중 축소 및 중화권(중국/대만) 비중 확대에 의한 구조적 수급 블랙홀 현상 발생.

107,000,000,000,000 ₩

-2.62%

삼성전자 호실적에도 외인 130.7만주,
기관 408.8만주 순매도 융단폭격.
개인 홀로 525.9만주 방어했으나 역부족.

삼성전자 3분기 누적/예상 영업이익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

코스피 지수 급락 (6,625.93)
철저한 Sell the News

Domestic Sector X-Ray: 극명하게 엇갈린 업종별 온도차

Winners / 상승 업종	Losers / 하락 업종
■ 은행 +2.00%	■ 증권 -3.47%
■ 제조업 +1.49%	■ 유통업 -3.42%
■ 보험 +1.34%	■ 건설업 -3.18%
■ 운수장비 +0.45%	■ 비금속광물 -2.92%
금융/자동차 등 실적 기반 방어주 중심으로 제한적 수급 유입.	고금리 장기화 직격탄을 맞은 건설, 내수 소비 침체를 반영한 유통업 투매.

LG에너지솔루션 403,000원 (+3.07%)	삼성SDI 567,000원 (+0.89%)	삼성전자 263,000원 (-2.05%)	
		SK하이닉스 1,686,000원 (-2.15%)	
LG화학 281,500원 (+1.62%)	삼성바이오로직스 1,220,000원 (-4.46%)	현대차 324,500원 (-3.42%)	기아 107,000원 (-2.37%)

엔비디아는 사지만 삼전·닉스는 판다. 글로벌 투자자의 철저한 AI 차별화 장세 속에 2차전지만이 고군분투.

동북아 증시 3국지: ‘고립’된 한국, ‘주도’하는 대만, ‘부활’하는 중/일

한국 (KOSPI)	수익률(3Q): -19.3%	구조적 매도 (3개월째 박스권)	AI 수급 이탈 및 3대 걸림돌(매크로, 환율, 반도체 소외)에 갇힌 ‘고립 장세’
대만 (TAIEX)	수익률(3Q): 상대적 초강세	집중 매수	글로벌 AI 랠리의 최대 수혜처로 ‘자금 블랙홀’
중국/일본 (SHCOMP/N225)	수익률(3Q): 급반등 / 보합	‘셀 차이나’ 종료 후 유입 전환	경기 부양책과 엔화 약세 기반의 ‘자국 중심 플레이’

일본/대만이 달리고 중국이 부활하는 동안,
한국 증시는 3대 걸림돌에 막혀 독자적인 하락 늪에 빠짐.

10/9 (수)

10/13 (화)

10/14 (수)

10/15 (목)
- The D-Day

주말 전망

- 미국 FOMC 의사록 공개 ★★★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

- 미국 JPM 실적 발표

- 일본 PPI 발표 ★★★

- 중국 CPI / PPI 발표 ★★★
- 미국 Core CPI / CPI 발표 ★★★
- ECB 총재 및 FOMC 위원 연설 다수

-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 Q3 실적 발표 예상



Defensive (방어적 스탠스)

현금 비중 절대 유지.
고유가 및 금리 변동성에
대비하여 가치주/에너지 중심의
방어적 포트폴리오 구축.



Wait & See (확인 후 대응)

10/15 미국 CPI 지표 및
다음 주 JPM 등 주요 기업
실적 확인 전까지 공격적인
저가 매수(Buy the dip) 자제.



Watchlist (반등 트리거 관찰)

코스피 반등의 유일한 키는
'AI 인프라'. 엔비디아와
국내 CPU·기판·MLCC 관련
수급 회복 여부를 최우선 모니터링.

**매크로 변동성이 펀더멘털을 압도하는 구간입니다.
지금은 수익 극대화보다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입니다.**